AI PEN 인터넷신문윤리강령

(제정: 2025년 05월 16일)

제1조 (목적)

이 강령은 디지털 기반의 인터넷신문 종사자들이 언론의 사명과 책임을 자각하고, 온라인 공간에서의 진실하고 윤리적인 보도를 통해 공공의 이익과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윤리적 기준을 제시한다.

제2조 (언론의 자유와 책임)

- 1. 인터넷신문은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자유를 가진다.
- 2. 언론의 자유는 무제한적인 권한이 아닌 공공의 신뢰와 사회적 책임에 기반한 자율적 행위로 오용되어서는 안 된다.

제3조 (진실 보도와 디지털 편집 유리)

- 1. 인터넷신문은 사실에 입각한 보도를 원칙으로 하며,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유포하지 않는다.
- 2. 낚시성 제목, 이미지 조작, 맥락 왜곡, 클릭 유도형 콘텐츠 등은 진실 보도를 해치는 행위로 간주하며, 이를 지양한다.
- 3. AI PEN은 기사 제목과 본문, 이미지, 메타데이터 편집 시 사실성, 정확성, 맥락 보존 원칙을 철저히 준수한다.

제4조 (공정성 및 균형)

- 1. AI PEN은 정치적, 경제적 이해관계로부터 독립적으로 보도하며, 사실 중심의 객관 적 콘텐츠를 지향한다.
- 2. 다양한 시각을 균형 있게 반영하여 독자의 합리적 판단을 돕는다.

제5조 (인권 보호)

- 1. 개인의 명예, 사생활, 인권은 보도 과정에서 최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며, 온라 인 특유의 확산성을 고려하여 더욱 신중하게 접근한다.
- 2. 소수자, 약자에 대한 차별적·혐오적 표현은 허용하지 않으며, 관련 기사에 대한 내부 심의 기준을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.

제6조 (기사 및 광고 윤리의 실천 조직 운영)

1. AI PEN은 기사 윤리 및 광고 윤리 실천을 위한 내부 윤리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으며, 기사형 광고, 협찬 보도, 콘텐츠 마케팅 기사 등 상업성 콘텐츠의 투명한 구분 및 표시를 엄격히 적용한다.

2.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기사에는 상업적 이해관계의 존재 여부를 명확히 표기하며, 광고와 편집 콘텐츠의 분리 원칙을 실천한다.

제7조 (사적 이익의 배제)

- 1. 기자 및 운영자는 본인의 지위나 직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.
- 2. 광고·협찬 수주와 보도 사이의 부당한 연계는 엄격히 금지한다.

제8조 (출처 보호 및 온라인 취재 윤리)

- 1. 온라인상에서도 취재원 보호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되며, 허위 계정이나 조작된 정보를 통해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는 엄중히 금지된다.
- 2. 댓글, 커뮤니티, SNS 기반의 정보 취득 시에도 검증 원칙을 우선하며, 사생활 침해성 캡처 보도는 지양한다.

제9조 (오보의 정정과 이용자 권리 보장)

- 1. 오보 및 오류 콘텐츠 발생 시에는 즉시 정정 공지를 게시하고, 수정 내역을 투명하게 표시한다.
- 2. 보도에 의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는 정정보도, 삭제요청, 반론권을 신속히 보장하며, 그 절차는 공개된 규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한다.

제10조 (디지털 윤리 및 자율규제 제도 마련)

- 1. AI PEN은 인터넷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(예: 댓글 조작, 알고리즘 조작, AI 생성 콘텐츠 등)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 자율규제 제도를 마련할 수 있다.
- 2. 이는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의 윤리 기준, 인터넷신문위원회의 심의 기준에 준하며, 외부 감시기구와 협력하여 상시적 윤리 점검 체계를 유지하도록 한다.

제11조 (윤리 강령 준수 서약 및 공표)

- 1. AI PEN은 임직원과 기자, 외부 필진에게 본 윤리강령의 서면 서약 절차를 거칠 수 있으며, 이러할 경우 이를 사내외에 공식 공표한다.
- 2. 윤리 위반 시에는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수정, 경고, 공개 사과, 콘텐츠 삭제 등의 조치를 즉시 이행한다.

부칙(시행일 등)

제1조 (시행일)

이 강령은 2025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즉시 발효)

본 윤리 강령은 공표된 시점부터 즉시 발효되며, 기존 강령과 상충되는 모든 내부 지침은 본 강령에 따라 조정·통합된다.